2024-03-28

Economy Brief

2차 차이나 쇼크(2) : 대륙의 실력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 Summary 】

- ✓ 대륙의 실수가 아닌 대륙의 실력을 보여주는 중국산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음
- ✓ '중국제조 2025'와 '고품질발전 전략'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 중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까지 중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은 글로벌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이나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내도 예외가 아님

대륙의 실수가 아닌 대륙의 실력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좋은 중국 제품이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을 간혹 써왔지만 더 이상 중국 제품에 대해 대륙의 실수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오히려 '대륙의 실력'을 보여주는 중국산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내 시장은 물로 글로벌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저가 중국 전기차 공세에 미국과 EU 가 이미 바짝 긴장했고 중국산 전기차 공세 대응차원에서 고율관세를 부과할지를 고민 중이다.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해 중국 경제와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고품질발전 전략'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는 천만원 초중반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는 동시에 '시걸' 이라는 1,300만원대의 전기차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화웨이가 시장을 놀라게 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중국내에서 애플과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전기차 역시 중국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를 대표하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로 여전히 경기 회복 혹은 경기 정상화에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고품질발전 전략'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시키고 있다.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이 중국 경제와 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륙의 실수가 아닌 대륙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또 다른 차이나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당국은 미국 첨단 기술제재에 맞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보복성 성격의 제재를 강화 중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인텔,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PC와 서버를 정부 기관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맞불 성격이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중국산 제품으로 이들 미국산 제품을 대체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춘제 연휴 영향이 있지만 애플의 2월 중국 출하량이 전년동월 33% 감소했다. 1월 출하량도 전년동월 39% 감소한 550만대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중국내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은 중국 내수경기 부진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화웨이 약진과 중국 당국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도 악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중국내 판매도 올해 1~2월 누적기준 전년동기 약 6% 감소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이후 판매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산 첨단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강화, 애국주의 마케팅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품질 제고와 가격 경쟁력이 미국 등 서방 첨단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이폰과 테슬라 판매 부진 현상은 대륙의 실력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AI 분야에서도 중국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또 다른 차이나 쇼크에 직면

당사는 지난 3월 7일자 보고서(2차 차이나 쇼크를 경계해야 할 듯)를 통해 알리 등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공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이 국내 내수업체에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지만 예상보다도 빠르게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내수 침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더욱 공세적인 전략을 실시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내수관련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일 수 밖에 없다.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공세와 함께 앞서 언급한 BYD가 연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중국 공세가 예상된다. 물론 중국 e커머스업체들의 저가 제품과 달리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호응을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가격메리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중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까지 중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은 글로벌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이나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다소는 이른감이 있지만 첨단제품을 둘러싼 미국-중국간 경쟁이 미국 경제와 빅테크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경험을 통해 습득했지만 중국의 과도한 투자, 즉 전기차 및 이차전지분야의 과잉 투자가 자칫 글로벌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일정부분 용인하면서 자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도 주목할 부문이다.

그림1. 초저가 전기차 제품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BYD

자료: 뉴스1, 위드카뉴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1~2월 급감한 애플 아이폰의 중국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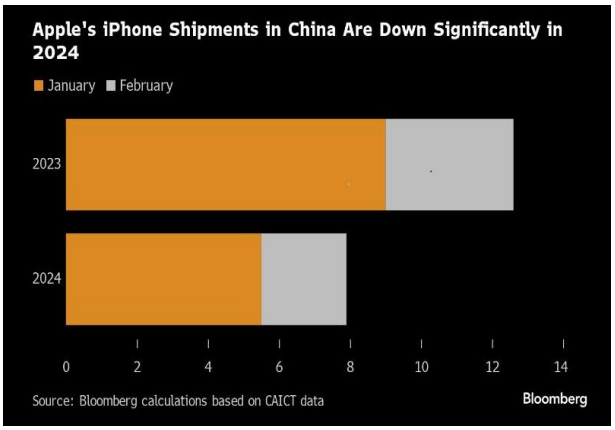


그림3. 중국내 테슬라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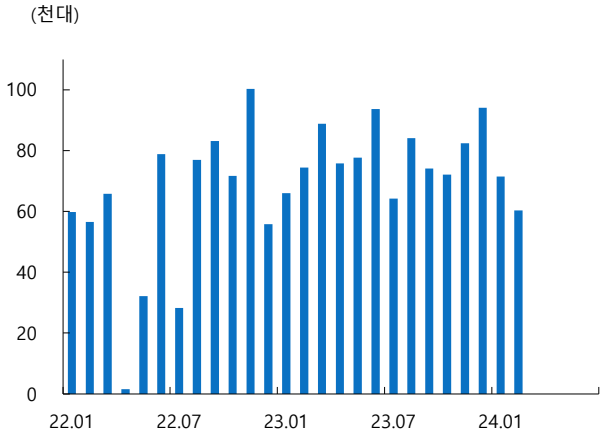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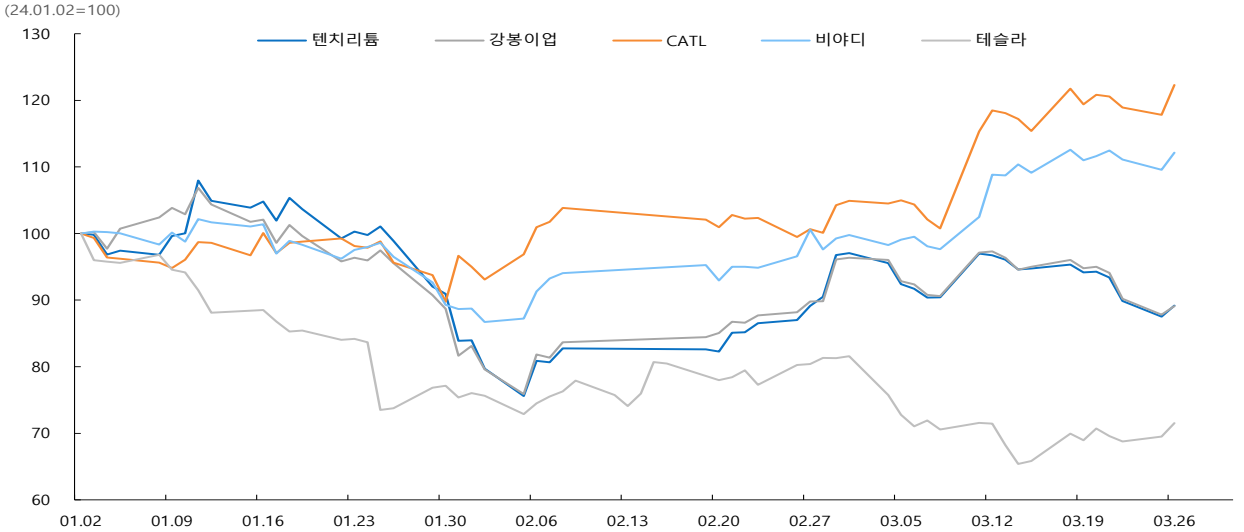


그림4.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및 리튬생산업체 주가 추이 비교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